

2025년 2월 9일 “(주님을 아는 지식 6)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”(엡 3:14-19)

엡 3 장의 바울의 중보 기도 속에 말하는 속사람의 강건함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.

[1] 속 사람

구원받기 전에 나의 영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지 않았습니다. 하나님을 의식하지도, 알지도 못했고, 알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(성경은 이 상태를 죽었다고 함).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죽은 나의 영과 연합하여 주실 때 하나님에 대해 눈이 뜨이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(롬 8:15-16).

성령 받고 거듭난 속사람은,

롬 7:22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.

고후 4:16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(성화).

성령은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실 뿐 아니라 성화(성숙)의 과정을 이끌어 주십니다. 이것은 '속사람'의 강건함을 뜻합니다.

[2] 속사람의 강건함

세상의 자기중심적 풍조와 헛된 가르침의 영향은 남보다 뛰어나고 성취를 많이 이루면 잘 사는 것이라는 착각을 가지게 합니다.

그러나 신약저자들은 복음으로 사는 것은 율법주의나 세상 방식과 사상을 극복하고 살 수 있는 성화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. 그것은 외형적 차원이 아닌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의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배우고 따르는 것입니다.

[3] 강건함의 비밀

(1) 속사람이 강건해 지려면, 내면의 성찰이 중요합니다. 그러나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고 아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.

'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'(히 12:2) 바라보자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의 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. 우리에게겐 인격의 본, 삶의 본, 정신 세계의 본, 하나님께 대한 태도의 본이 되시는 주님이 필요합니다. 이 본을 따르는 것이 강건해지는 길입니다. 내 힘을 다한다고 해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.

모든 선박이 네비게이션이 있어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듯이 우리의 인격과 삶의 여정에서도 네비게이션이 되신 주님을 따를 때 바른 방향을 잡고 목적지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.

(2) 속사람의 강건함은 약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. 나는 약함을 택할 수 있을까요? 남에게 저주는 것,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을 따라주는 것, 당해주는 것,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것... 이렇게 약함을 택할 때, 사람의 속사람 속에 유익한 영적인 자원이 부어지고 내면 세계가 넓어집니다.

늘 이기려고 힘주고 싸우다 보면 질까 봐 불안과 두려움이 커집니다. 이것은 많은 부정적 사고와 행동을 낳기도 합니다. 운동을 배울 때 힘을 빼야 힘을 줄줄 안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. 그런데 이

수준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. 약함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연습하고, 자유함을 누리는 속사람의 강건함에 이르는 과정은 여러 날을 요구합니다.

약함 속에서 강건해지는 이유는 거기서 비로소 삶의 진수가 보이기 때문입니다. 그 진수는 약함을 택하신 예수님이 죽음으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.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는 내가 강해지려고 할 때 보이지 않습니다.

그러나 약함 속에서 십자가를 볼 때, 내가 붙들어야 할 진정한 삶의 힘인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게 됩니다. 속사람의 강건함은 이 사랑을 붙들고 행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.

우리 모두 속사람이 강건하여 사랑 넘치는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.

[나눔의 질문]

1. 속사람이 강건하여 지는 길은 무엇입니까?
2. 세상에서 말하는 강건함과 성경적 강건함의 차이를 말씀해 보세요.